



제105장 필

메카에서 계시된 5절로 카우바 신전을 파괴하기 위해 예멘의 왕 아브라하가 코끼리를 탄 군대를 메카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부리와 양다리에 세개씩의 돌을 가진 새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려 한 적들을 멸망시킨 이야기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해 서력 570년에 무함마드가 태어난 해였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.

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그대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했느뇨 에서 언급된 「필」이란 어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본다.

제 105 장

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
하나님의 이름으로

- 1. 주님께서 코끼리의 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이 이르지 아니 했느냐¹⁾
- 2. 그들의 음모를 파멸시켜 버리지 아니 했더뇨
- 3.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떼를 보내어
- 4. 모래와 흙으로 된 돌맹이들을 던지셨나니
- 5. 그들은 다 갇아 먹어버린 마른 잎과도 같았더라¹⁾



بِسْمِ اللَّهِ الرَّحْمَنِ الرَّحِيمِ

أَلَمْ تَرَ كَيْفَ فَعَلَ رَبُّكَ بِأَصْحَابِ الْفِيلِ ۝١

أَلَمْ يَجْعَلْ كَيْدَهُمْ فِي تَضَلُّبٍ ۝٢

وَأَرْسَلَ عَلَيْهِمْ طَيْرًا أَبَابِيلَ ۝٣

تَرْمِيهِمْ بِحِجَارَةٍ مِّن سِجِّيلٍ ۝٤

فَجَعَلَهُمْ كَعَصْفٍ مَّأْكُولٍ ۝٥

1-1) 그대 무함마드여! 하나님의 집 하람사원을 침범한 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코끼리 무리로 적들을 물리친 그 소식이 그대에게 이르지 아니했느냐? : 예멘의 왕 「아브라하 알아쉬랍」은 사나아에 교회 하나를 짓고 그곳으로 성지순례객들을 유치하려 하였다. 이때 가나나에서 한 남자가 그곳에 이르러 밤에 대변을 보고 또 벽에다 그 대변으로 더럽혀 그를 저주하였다. 그리하여 예멘의 왕 아브라하는 화가나 카오바 신전을 파괴하려 결심하고 코끼리들과 군대를 인솔하고 메카로 왔다. 이들 군대가 메카 가까이 왔을 때 메카 주민들은 군대와 코끼리들에 놀라 두려운 나머지 산으로 피하여 갔다.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하 군대에게 새들을 보냈고 각각의 새들의 입과 양 발에 3개의 돌을 가지고 와, 아브라하 군대와 코끼리들을 멸망시켜버렸다(알타프씨르 알카비르 96/13 및 타프씨르 알푸르뭇비 187/20). 이러한 사건은 바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태어난 그해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(아부 싸우드 285/5).

5-1) 본 장의 모든 절은 카오바 신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메카 꾸라이쉬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해가 선지자 무함마드가 태어날 곳이였고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(알바흐르 알무히트 512/8).